

1028(금) 요한복음 1-3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

공관복음서가 예수님과 사역의 <의의>를 다뤘다면,
요한복음은 <예수님은 누구신가>에 집중합니다(별첨 참고).

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<말씀>이십니다(1:14).
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
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, 그 말씀의 능력으로(1:1-3)
이 땅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.

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어둠에 거했으며,
생명을 잃고 물로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(창7:21-23).
빛이요, 생명이신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며(1:4-5,3:19)
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(7:38).
피(물)로써 구원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(3:15-16,19:34).

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 곧,
새로운 창조로 구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(3:35,4:34).
창조 때의 빛/물/생명이 예수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.

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(2:9, 표적 ①)
새로운 시대,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.
하나님이 약속하신 정결과 새 영의 역사(겔36:25-27),
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(3:3,5).

새 포도주가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았듯(2:10),
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.*
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**
<선생>들이 알지 못하고 답하지 못했던 일들을
완전하게 보이실 것입니다(2:24-25, 3:10-13,31-36, 7:16).

*1:16-17,45,5:39,46 **1:14,18, 34,41,49, 2:16, 3:12-13,18,

3:31-36, 5:18,25,10:36, 11:4,27, 19:7, 20:31

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창조를 소망합니까?

- ① 내 삶에 드리운 어둠/죽음/절망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?
- ②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가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?

하나님의 아들: 표적과 이름

요한복음은 예수님이 <하나님의 아들>임을 선포하며

8가지 표적들 *semeia*과 <나는-이다>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공관복음서는 치유/축귀에 <이적 dunamis>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

요한은 이적대신 <표적 *semeia*>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영어의 싸인sign에 해당합니다.

표적은 치유/축귀/기적 자체에 놀라고 감탄하기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바,

즉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신 이유와 의미, 메시지에 집중합니다.

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고

<나는 그이다>라는 <숨겨진 이름>을 썼습니다(신32:39, 42:8, 사52:6).

<나는-이다>라는 예수님의 소개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.

표적들과 <나는-이다>라는 구절은 앞뒤에서 서로 연결됩니다.

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앞 혹은 뒤에서

<나는-이다>라는 표현들을 통해 부연하여 설명하십니다.

8가지 표적들

- ❶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(2:1-11)
- ❷ 신하의 아들 치유(4:46-54)
- ❸ 베데스다 병자의 치유(5:1-18)
- ❹ 오병이어의 기적(6:1-15)
- ❺ 물 위로 걸으심(6:16-21)
- ❻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(9:1-41)
- ❼ 나사로의 부활(11:1-57)
- ❽ 예수님의 부활(20장)

<나는-이다> 문구

- ❶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(4:26, 18:5)
- ❷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(6:35, 41, 48, 51)
- ❸ 나는 세상의 빛이니(8:12)
- ❹ 나는 양의 문이라(10:7, 9)
- ❺ 나는 선한 목자라(10:11, 14)
- ❻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(11:25)
- 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(14:6)
- ❽ 나는 참 포도나무요(15:1, 5)
- ❾ 내가 곧 왕이니라(18:37)

_심상법, 요한복음의 주제와 구조, 두란노HOW

_권성수, 설교자를 위한 요한복음의 신학 이해, 두란노HOW